

대학 농업교육과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정체성 재정립과 향후 발전방향의 탐색

—농업교사직 진출을 중심으로—

오성삼
(건국대학교 농업교육과)

The Identity Problem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eaching Job Market

Sung-Sam Oh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Kon-Kuk University

적 요

In retrospect of the last thirty years, there has been a large influx of Korean society in the agricultural area.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n population has increased 106% during the years. Like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there has also been a change in the ratio of urban population. Not only has the population changed but there was also trends shifting from rural areas to urban areas to seek job markets and better schools. Due to the change of society, labor market, and policies regarding agriculture agricultural education in college level has faced many difficulties. Under circumstanc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urgent problem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Thus a few facing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given as follows:

Firs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would face a serious applicants shortage problem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ecrease of birth rate and non-popularity of the major area. As a measure to counter the decrease of applicants for agricultural studies, and to single out qualified students in the educational goals special screens for admission is needed to develop a separate admission system for agricultural high school graduates.

Second, instead of the quantity of graduates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must be focused on to come forward in competitive agricultural graduates.

Third, the way curriculum designed and implemented must also changed. An agr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using design-related problems that students carry through their courses from the freshman to senior year might be one-way of providing students with the needed association between courses that to them appear unrelated.

Fourth, to seek high-tech agricultural areas such as agricultural environment studies or life science in relation to agricultural fields, integrating current similar majors or departments in agricultural colleges is needed.

Last, most current difficulties stem from the indifference between departmental programs among the departments in Korean Universities regarding the demands, activities, and values of the job marke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국내 4년제 대학에 농업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교육과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1963년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비롯되었다. 이로부터 3년 뒤인 1966년에는 사립대학인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교육과가 설립되었으며 1983년에 이르러 또 하나의 농업교육과가 순천대학교에 설치되므로 해서 현재 국내에는 3개 대학의 농업교육과로부터 한해 8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농업교육과가 신설되던 1960년대의 국내 산업구조는 농업중심의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고 이 분야의 농업인구가 전 국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이른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요가 매우 높던 시대적 상황을 지니고 있었기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와 학생의 수 또한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양적인 면에서 팽창되어 있던 시대였었다. 이 시대의 중등교육기관에서의 농업교사의 수요는 매우 높았고 이같은 수요의 공급기능을 서울대와 건국대 농업교육과에서 감당하기조차 벅찰 정도였으며 농과대학 교직원으로서 이수자들로 부족되는 농업교사를 메워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의 정책이 농업으로부터 중화학 중심의 2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산업사회의 고용구조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상당수의 농업인구가 제조업 중심의 고용인구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인해 농업계 고등학교는 수적인 면에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교사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오늘날 농업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농업교육과의 존재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변화는 2000년에 이르러 국내 농업인구가 5%내외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고 농업고등학교와 농업계 학급 및 학생수의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현존 농업교육과의 존재가치 창출을 위한 발전 방향의 탐색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같은 실정 하에 국내 농업교육과의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농업교육과

의 학과 정체감 회복과 더불어 달라진 시대적 상황과 급변하는 학문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교육과의 위상과 교육목적, 교육내용, 진출의 방향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 농업의 국제경쟁력 역시도 사람에 의해 치러지는 것인 만큼 농업분야의 경쟁에 대처할 인력자원의 양성이야말로 제 일의 과제인 만큼 이에 대처할 국내 대학 농업교육과의 교육내용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더불어 미래 예측가능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공 영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농업교육과의 본래 설치목표와 기능면에서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을 위한 제반 문제점들을 밝혀보고 향후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본 연구가 시도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과 내용

앞서 제기된 한국대학 농업교육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학문의 변화와 농업구조의 제반 변화로 인해 퇴색되어 가는 대학농업교육과 고유의 존재가치를 창출해 내고 대학농업교육과의 기능과 역할강화와 더불어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경쟁력 있는 학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1) 농업교육과의 발전을 저해하는 학과 외적인 요인의 고찰
- 2) 교직 진출과 관련한 농업교육과의 당면 과제 규명
- 3) 농업분야의 교직 진출 전망을 위한 현직 농업교사들의 배경 분석
- 4) 향후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의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진술된 연구내용들에 관한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문헌연구 : 선행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 농업교육과가 출현한 시점을 출발점으로 과거 30여년간 농업교육과와 관련한 시대적 사

회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추이를 고찰해 보았다.

2) 설문조사 : 선행연구나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만으로 부족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조사대상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12월과 1995년 6월 현재 농업교육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년도별 최종 대상 인원은 '91년도의 256명과 '95년도의 231명이었다.

② 측정도구 : 측정도구는 의도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설문지의 내용구성, 지원행태, 전공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들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들로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③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입력과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문항별로 그 해당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년에 따른 반응 형태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인터뷰 : 앞의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나 현상들에 관해 해당분야의 권위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혹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고용구조와 학문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방향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II. 농업교육과의 외적 상황변화 추이

본 연구는 향후 농업교육과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추세에 대응하고 졸업생들의 진로방향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지난 30년간의 국내 雇傭與件의變化, 就業構造의變化, 그리고 失業者 樣態에 關한量的인變化推移를考察해 보고 이같은 변화들이 향후 기대되는 農業教育科의 役割變化和 正體性 確立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의 方向提示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농업교육과 존재의 의미 부여와 졸업생 진출의 방향이 이와 같은 변화의 연

속선 상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인용된 각종 통계자료의 대부분이 통계청 사회통계과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된 '94년 12월 7일자'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농업교사 관련 자료는 교육부 자연과학 편수실의 자료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1. 고용여건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의 고용여건과 관련된 人口, 經濟, 社會의 여건의 변화 양상을 <표1>에 근거하여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口與件 면에서 인구규모가 '63년 2천 726만 2천명에서 '93년에는 4천 405만 6천명으로 1.6배가 증가하였는데 가족계획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은 '63년 2.8%에서 '93년 0.9%로 대폭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25직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70년대 이후 생산가능한 인구로 대폭 진입이 되었으며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역시 크게 변모하였다. 즉, 15세 미만의 연소층은 '63년 43.5%에서 '93년 24.3%로 감소한 반면,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계층은 동 기간 중 53.5%에서 70.3%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3.0%에서 5.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60년 우리 나라의 도시인구 비율은 28.0%에 불과하였으나 '70년 41.1%, '80년 57.3%, 그리고 '90년 74.4%까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둘째로 經濟的 與件은 '63년부터 '93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8.6%의 고도성장을 보임으로서 1인당 GNP가 '63년 100달러에서 '93년 7천466달러를 기록하였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개편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農林漁業의 비중이 '63년 46.3%이던 것이 30년 후인 '93년도에는 7.8%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제조업의 비중은 '63년 15.8%에서 '93년 30.0%로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비중 역시 동년대비 36.0%에서 61.8%로 늘어났다.

셋째, 社會的 與件과 관련하여 출산력의 저하, 핵가족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의 개선 등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력 공급에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하였는데 경제활동 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년 34.4%에서 '93년에는 40.0%로 늘어났으며 대학의 정원과 관련한 현상으로는 '80년 이후에 대학 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입학정원을 확충함에 따라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한편 '80년대 후반이후 노사관계의 전환점을 맞아 제조업부문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 고용여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80년대 말 이후 3D 직종의 기피현상과 같은 노동공급형태가 나타나 고용 및 임금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표 1. 주요여건의 변화

분 야	구 분	단 위	'63	'73	'83	'93
인 구	인구규모	천명	27,262	34,103	39,910	44,056
	· 남	천명	13,708	17,235	20,129	22,177
	· 여	천명	13,554	16,868	19,781	21,879
	인구증가율	%	2.83	1.78	1.49	0.90
	연령구조	%	100.0	100.0	100.0	100.0
	· 0~14	%	43.5	40.6	32.1	24.3
	· 15~64	%	53.5	56.2	63.9	70.3
	· 65세 이상	%	3.0	3.2	4.0	5.4
	평균수명 ¹⁾	세	55.3	63.2	65.8	71.3
	도시인구비율 ¹⁾	%	28.0	41.1	57.3	74.4
경 제	GNP('90년불변)	10억원	18,211	44,690	92,503	215,614
	1인당 GNP	%	100	396	2,002	7,466
	산업구조	\$	100.0	100.0	100.0	100.0
	· 농림어업	%	46.3	27.0	15.1	7.8
	· 광공업	%	17.7	28.2	34.3	30.4
	· 서비스	%	36.0	44.8	50.7	61.8
	중공업비중 ²⁾	%	29.7	39.9	55.1	71.5
사 회	여성노동력비중	%	34.4	36.9	38.5	40.0
	진학률					
	· 중학교	%	54.3 ³⁾	70.7	98.6	99.9
	· 고 교	%	69.1 ³⁾	68.1	89.4	98.2
	· 대 학	%	32.3 ³⁾	28.1	38.3	38.4

1) '60년, '70년, '80년, '90년 자료임 2) 제조업에 관한 비중임 3) '65년 자료임

2. 취업구조

다음으로 농업인력수요와 관련하여 '63년에서 '93년까지 지난 30년간의 취업구조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전체 취업자는 30년 동안 연 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별로는 農林水産業에서만 -1.7%의 취업자 減少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건설업은 8.1%, 제조업은 7.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었다. 여기서 참고로 지난 30년

간의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한편 산업별 생산구조는 '63년에 농림어업 46.3%, 광공업 17.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산업 0%에서 '93년에 각각 7.8%, 30.4%, 61.8%로 변화하였는데 동기간 30년 동안 농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표

표 2.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단위:%)

기간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박	음식숙 기타
63-70	3.5	0.3	11.4	11.5	6.8	7.0	—	—
70-75	4.0	2.0	10.4	11.6	4.0	13.1	—	—
75-80	3.2	-2.7	6.9	6.7	7.7	11.2	—	—
80-85	1.8	-4.2	3.6	3.5	5.0	1.7	5.3	5.8
85-90	3.9	-2.8	6.5	7.1	5.4	8.4	3.1	6.8
90-93	2.1	-4.4	-1.9	-1.8	5.9	7.9	5.7	4.3
63-75	3.7	1.0	11.0	11.5	5.7	9.5	—	—
75-85	2.5	-3.4	5.2	5.1	6.3	6.5	5.3	5.8
85-93	3.2	-3.4	3.4	3.8	5.6	8.2	4.6	5.9
63-93	3.2	-1.7	7.0	7.3	5.9	8.1	4.6 ¹	5.1 ¹

3)에서와 같이 '63년 農林漁業 63.0%에서 '93년 14.7%로 현격한 감소현상을 초래한 반면 광공업은 8.7%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산업은 28.3%가 '93년에 이르러 각각 14.7%, 24.4%, 60.9%로 증가되는 변화를 보였다.

표 3. 취업자의 산업별구성비

구 분	63	68	73	78	83	88	93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3.0	52.4	49.8	38.4	29.7	20.6	14.7
광공업	8.7	13.9	16.3	23.1	23.3	28.5	24.4
제조업	7.9	12.7	15.8	22.3	22.5	27.7	24.2
SOC및기타	28.3	33.7	34.0	38.5	47.0	50.9	60.9

이같은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를 주요 先進國들과 비교하면 <표4>에서와 같이 '농림어업 취업자' 구성비는 15%로 5% 전후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제조업 취업자의 구성비는 '92년에 25.5%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 대만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92년)

(단위:%)

구 분	한 국		미국 (92)	일본 (92)	대만 (92)	독일 (92)
	92	93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5.8	14.7	2.9	6.4	12.8	3.0
광공업	25.8	24.4	17.6	24.6	31.3	28.8
제조업	25.5	24.2	17.0	24.5	31.1	28.2
SOC및기타	58.4	60.9	79.5	69.0	55.9	68.2
건설업	8.7	8.8	6.4	9.7	9.3	5.9

3. 실업구조

아래 그림 1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학력자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낮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高學歷 失業率이 오히려 全體失業率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0~24세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무려 13%를 기록하여 8명 중 1명 꼴로 취업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 우리사회에 고학력자 실업문제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초반 대졸 남자의 실업률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21.5%를 기록하여 5명중 1명 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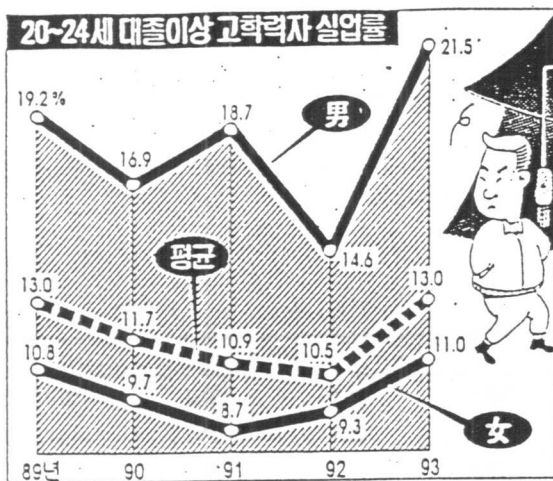


그림 1. 고학력 실업자

지난 30년 동안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자 수와 저학력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졸이상 실업자는 '93년 14만명으로 '8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로 여전히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失業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 자는 실업률이 '89년 13.0%에서 '92년 10.5%로 감소해 왔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93년에는 13.0%로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4. 대학취학 인구

향후 대학 진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게 되고 교육시장 개방화로 인해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문제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리

대학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이같은 신입생 지원자의 감소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항간에는 국내 대학의 4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같은 기존대학 폐교 현상은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을 시발점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은 향후 해외의 지명도가 높은 대학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접어들 것 이란 추측도 놓고 있다. 이같은 예측이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지니고 있어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향후 신입생 고갈의 문제가 어느 특정지역 특정대학들에 총체적으로 찾아들기 보다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분야의 인기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지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학과를 많이 지니고 있는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비인기 학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아무리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이라 할지라도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학과가 인기학과이고 어떠한 학과가 비인기 학과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맡겨 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졸업과 더불어 진로가 넓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취업관련 여건이 지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이같은 취업의 문호는 사회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방향은 얼마든지 뒤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점차 대학지원자들로부터 비인기화 해가고 있는 농학 분야와 사범계열 분야에 뿌리를 둔 농업교육학과가 향후 얼마나 지원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졸업후 취업의 진로가 얼마나 보장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분야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반적인 대학진학 인구의 전망부터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學齡人口를 중심으로 예측하는 것과 각급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각급 학교 및 학년간 진급률, 졸업률 및 진학률 등이 매우 높고 안정적이므로, 1993년의 각급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

준으로 향후에도 1990~1993년의 4년간 평균치의 지속을 추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을 전제로 각급 학교의 재학생 수로부터 고졸예상치

표 5. 고졸자수, 고등교육 진학률, 고등교육 지원율의 전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8세 인구(3.1기준)	767,795	755,795	785,719	828,087	846,040	838,029	793,653	720,596	663,143	652,910	639,905
1993년도 재학생	668,144	708,608	741,098	834,567	835,209	843,447	807,910	729,443	639,977	634,788	614,625
	(고2)	(고1)	(중3)	(중2)	(중1)	(국6)	(국5)	(국4)	(국3)	(국2)	(국1)
고교졸업자 예상치	651,000	670,000	660,000	738,000	736,000	742,000	712,000	643,000	564,000	559,000	536,000
전문대학정원	208,000	223,000	238,000	253,000	268,000	283,000	283,000	283,000	283,000	283,000	283,000
대학 정원	239,000	245,000	251,000	257,000	263,000	269,000	269,000	269,000	269,000	269,000	269,000
진학률	0.69	0.70	0.74	0.69	0.72	0.74	0.78	0.86	0.98	0.99	1.03
지원자(당해졸업생)	520,800	536,000	528,400	590,400	588,800	593,600	569,600	514,400	451,200	447,200	428,800
지원자(재수생)	210,440	198,971	186,879	158,166	166,961	157,333	139,253	109,797	50,538	0	0
지원율	1.64	1.57	1.46	1.47	1.42	1.36	1.28	1.13	0.91	0.81	0.78
생산현장진입자 (미진원자)	130,200	134,000	132,000	147,600	147,200	148,400	142,400	128,600	112,800	111,800	107,200
생산현장진입자 (재수생)	85,273	80,091	67,764	71,555	67,428	59,680	47,056	21,659	0	0	0
생산현장진입자 (합계)	215,473	214,091	199,764	219,155	214,628	208,080	189,456	150,259	112,800	111,800	107,200

위의 <표5>에서 보면, 고졸자는 1995년의 약 65만 명을 低點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소위 '베이비 붐 제2세대'가 고교를 졸업하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74만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을 頂點으로 2003년까지 크게 감소하여 약 65만명 수준까지 하락하는 큰 파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18세 기준 학령인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 기간 동안 고졸자 수는 감소된 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대학 진학인구의 절대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2000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인기 학과들의 지원률 미달사태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하나의 징후로서 금년도 '95년 신입생 모집에서 나타난 현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금년도 특차전형 실시한 대학들에서 단 한 명의 지원자도 확보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농학계 학과들이 그렇고 전기대학 원서마감 결과 미달사태를 보인 대부분의 학과들이 농학계열 학과였

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미달된 대학들이 결코 대학의 평판이 나쁘거나 소재지가 지방이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란 점이다. 세칭 일류대학으로 불리는 서울 소재의 고려대학의 특차 전형 마감결과 대부분의 농학계열 지원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과 지방의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경북대학과 전남대학의 입학시험의 농학계 학과들의 지원자가 미달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금년도 대학시험에서 경쟁률 있는 농학계 학과와 사범계열 학과 특히 농업교육과의 경우도 알고 보면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원서마감시간 한두 시간을 남겨놓고 무더기 지원을 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이같은 거품지원의 현상은 향후 머지않은 기간에 국내 대학가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전망할 때 현 체제하에서의 향후 농업교육과의 신입생 자원 고갈 현상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교직진출과 관련한 농업교육과의 당면과제

앞서 고찰해본 시대변화와 상황변화에 따른 중등학교의 농업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 농업교육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적격자 선발의 문제

대학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적격자의 범주를 이야기할 때 첫번째 조건이 전공에 대한 적성(aptitude)

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입학 후 그 분야에서의 수학능력(academic ability)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농업교육과 신입생들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농업교육과 지원자들의 지원실태의 한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91년도와 '95년도 본 발표자가 3개 대학 농업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교육과 지원행태와 전공만족도'에 관한 조사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대학별, 학년별 구분을 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속은 %

구 분			91년 응답자수(응답률)		95년 응답자수(응답률)
대 학 명	건국대학교		97(37.9)		94(40.7)
	서울 대학교	농업교육	100(39.1)	42	76(32.9)
		농촌사회		58	
	순천대학교		59(23.0)	61(26.4)	
학 년	1학년		72(28.1)	62(26.8)	
	2학년		77(30.1)	48(20.8)	
	3학년		85(33.2)	55(23.8)	
	4학년		22(8.6)	64(27.7)	

이제 농업교육과 적격자 선발과 관련한 지원행태를 문항별로 고찰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학과지원동기'를 보면 '91년의 경우 9%정도의 학생들만이 '전공분야에 흥미를 느껴서'라고 했는데 이같은 전공에 관한 매력은 '95년에 이르러 6%정도로 하락하였음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래 취업전망이 좋아서'라는 응답역시도 '91년도 8%정도에서 '95년에 이르러서는 2%로 크나큰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실력(성적)에 맞춰서'라는 응답자는 '91년에 비해 '95년도에 각각 늘어난 경향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최초로 농업교육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91년과 '92년도 공히 '입학원서를 쓸 무렵'에 가장 많은 70%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응답 반응을 통해 나타난 현상은 세월이 경과할 수록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는 점차 떨어져 가고 있고 반면에 대학 수능시험 성적 결과를 가지고 대학진학의 한 방편으로

전공에 대한 적성과 흥미와는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 입학 당시부터 전공분야에 흥미와 뜻이 없는 학생들을 교육시켜 전공관련 농업교사로 진출을 시킨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입학후 전공 만족도의 문제

입학후 학과의 전공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만약에 원하는 학과로의 轉科가 허락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8>에서와 같이 '타 전공 학과로 전과하겠다'는 응답이 '91년 59%의 학생들이 '95년에 들어와 43%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 농업교육과 학생인 것에 대한 만족도 역시 '91년에 비해 '95년도에는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동생이나 후배가 농업교육

표 7. 농업교육과 지원형태

구	분	91년응답자수	95년응답자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최초로 농업교육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6(2.3)	1(0.4)
	고등학교 1,2학년 기간에	7(2.7)	4(1.7)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6(2.3)	8(3.5)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28(10.9)	26(11.3)
	입학원서를 쓸 무렵	180(70.3)	162(70.1)
	재수하는 동안에	8(3.1)	5(2.2)
	기타	21(8.2)	25(10.8)
농업교육과를 선택한 동기	전공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24(9.4)	14(6.1)
	장래 취업전망이 좋아서	20(7.8)	5(2.2)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서	14(5.5)	8(3.5)
	실력(성적)에 맞춰서	104(40.6)	116(50.2)
	선생님이나 주위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67(26.2)	64(27.7)
	기타	27(10.6)	24(10.4)
농업교육과를 지원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고등학교 선생님	105(41.0)	112(48.5)
	학원 선생님	3(1.2)	0(0.0)
	학부모(형,누나 포함)	48(18.8)	27(11.7)
	본인 스스로	86(33.6)	75(32.5)
	친구	1(0.4)	2(0.9)
	선배	5(2.0)	6(2.6)
	기타	8(3.1)	9(3.9)

표 8. 농업교육과 입학 후의 전공에 관한 인식

구	분	91년응답자수	95년응답자수
현재 농업교육과 학생인 것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20(7.8)	20(8.7)
	비교적 만족스럽다	43(16.8)	95(41.1)
	그저 그렇다	99(38.7)	83(35.9)
	비교적 불만스럽다	77(30.1)	29(12.6)
	매우 불만스럽다	17(6.6)	4(1.7)
동생이나 후배가 농업교육과를 지원할 경우 권장 정도	적극 권장하겠다	40(15.6)	19(8.2)
	권장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87(34.0)	60(26.0)
	그냥 지켜보겠다	81(31.6)	92(39.8)
	권장하지 않겠다	34(13.3)	47(20.3)
	절대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 겠다	14(5.5)	13(5.6)
전과 희망 유무	전과하겠다	152(59.4)	99(42.9)
	잘 모르겠다	51(19.9)	78(33.8)
	전과하지 않겠다	52(20.3)	54(23.4)
	무응답	1(0.4)	0(0.0)

과를 지원할 경우 '적극 권장하겠다'는 학생은 '91년 16%에서 '95년 8%로 낮아졌고 '권장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응답자 역시 34%에서 26%로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두개의 상반된 현상 즉, 농업교육과 재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후배들이 농업교육과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 말리겠다는 응답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본 연구자의 해석은 농업교육과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동안 농업교육과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교양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진출분야의 모색을 통한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반면 향후 학

과의 장래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한편 입학후 전공과 관련한 인식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내용에 관한 만족도가 '91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크게 증가해 있음을 보게 되며 농업교육과 내에서 전공영역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에 대한 질문 결과는 '91년과 '95년 모두 응답자의 40%가 넘는 학생들이 '교직 이외 사회 진출이 용이한 분야'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농업교육과 입학 후의 전공에 관한 인식

구 분		91년응답자수	95년응답자수
농업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1(0.4)	8(3.5)
	비교적 만족스럽다	51(19.9)	80(34.6)
	그저 그렇다	77(30.1)	96(41.6)
	비교적 불만스럽다	90(35.2)	37(16.0)
	매우 불만스럽다	33(12.9)	10(4.3)
	무응답	4(1.6)	0(0.0)
	교직진출이 용이한 분야	44(17.2)	55(23.8)
	학점이수가 용이한 분야	28(11.0)	28(12.1)
농업교육과 내에서 전공영역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	교직이외 사회 진출이 용이한 분야	106(41.4)	100(43.3)
	별다른 생각없이 한다	30(11.7)	17(7.4)
	기타	40(15.6)	30(13.0)
	무응답	8(3.1)	1(0.4)

3. 졸업생 진로의 문제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나타났는데 졸업 후 진출 희망분야로는 '비농업 관련직'으로의 진출 희망자가 '91년 '95년 모두 30%수준으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기타' 직종 22%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교사' 진출 희망자는 '91년 17%에서 '95년 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3개 대학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농업교육과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3개 대학을 구분하여 본 결과 특이한 점은 순천대학 농업교육과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분야는 '농업교사'로 건국대

6.4%, 서울대 6.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37.7%를 나타내고 있었고 건국대와 서울대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경우 '비농업 관련직' 진출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는 건국대의 경우 60%정도의 학생들이 타학과로 서울대의 경우는 70%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될 경우 타학과를 선택할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학과의 대학원'을 진학하겠다는 학생의 수 역시 앞서 농업교사 진출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천대학이 가장 많은 30%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본 연구자의 농업교육과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95년 2월 3개 대학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현황을 대비해 보기 위해 <표 12>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0. 학과 졸업생들의 문제

구 분		91년 응답자수	95년 응답자수
졸업후 진출희망분야	자영농업	6(2.3)	4(1.7)
	농업학교교사	44(17.2)	34(14.7)
	농업관련연구원	44(17.2)	30(13.0)
	상기항목외 농업관련직	28(10.9)	44(19.0)
	비농업관련직	77(30.1)	68(29.4)
	기타	57(22.3)	50(21.6)
졸업후 진로와 관련여 농업교사로의 희망 정도	아주 많이	23(9.0)	22(9.5)
	많이	26(10.2)	50(21.6)
	그저그렇다	122(47.7)	58(25.1)
	조금	23(9.0)	41(17.7)
	아주조금	55(21.0)	56(24.2)
	무응답	7(2.7)	4(1.7)
진학 희망 대학원과 학과	동일학과 본교대학원진학	27(10.5)	42(18.2)
	타학과 본교대학원진학	83(32.4)	75(32.5)
	동일학과 타교대학원진학	16(6.3)	23(10.0)
	타학과 타교대학원진학	57(22.3)	67(29.0)
	기타	12(4.7)	18(7.8)
	무응답	61(23.8)	6(2.6)

표 11. 졸업후 진로관련 대학별 반응 대비표

구 분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졸업후진로 와 관련하여 농업 교사로 의 희망 정 도	아주 많이	6(6.4)	5(6.58)	11(18.03)
	많이	23(24.5)	10(13.16)	17(27.87)
	그저 그렇다	25(26.6)	17(22.37)	16(26.23)
	조금	13(13.8)	17(22.37)	11(18.03)
	아주 조금	25(26.6)	26(34.21)	5(8.20)
	무응답	2(2.1)	1(1.32)	1(1.64)
졸업 후 진 출 희망분야	자영농업	3(3.2)	1(1.32)	0(0.00)
	농업학교 교사	6(6.4)	5(6.58)	23(37.70)
	농업관련연구원	8(8.5)	15(19.74)	7(11.48)
	상기이외의 농업관련직	22(23.4)	19(25.00)	3(4.92)
	비농업관련직	30(31.9)	27(35.53)	11(18.03)
	기타	25(26.6)	9(11.84)	16(26.23)
	무응답	0(0.0)	0(0.00)	1(1.64)
진학 희망 대학원 및 학과	동일학과 본교대학원진학	18(19.1)	21(27.63)	3(4.92)
	타학과 본교대학원진학	20(21.3)	51(67.11)	4(6.56)
	동일학과 타교대학원진학	6(6.4)	0(0.00)	17(27.87)
	타학과 타교대학원진학	36(38.3)	2(2.63)	29(47.54)
	기타	11(11.7)	2(2.63)	5(8.20)
	무응답	3(3.2)	0(0.00)	3(4.92)

표 12. 95년도 농업교육과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대 학	졸업인원	교직진출자	대학원 진학자	전공관련직 진출자	전공이외 취업자	군입대자	미취업자
건국대	26	2		10	5	1	8
서울대	24	1	2	3	4	8	6
순천대	20	5			8		7
계	70	8	2	13	17	9	21

위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직 진출과 관련하여 '95년 2월 3개 대학 농업교육과 졸업 인원 70명 가운데 농업교사로 진출한 인원은 고작 8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11.4% 만이 교직진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나타난 졸업생 진출의 결과가 재학생들의 평소 진출희망분야와 매우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평소 농업교사로서의 진출에 대한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던 순천대학의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교직 진출이 건국대와 서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농학계 대학 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어느 정도 준비시켜 공급하고 있는가의 정도와 학생 개개인들이 농학교육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여 직업분야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분야에 진출을 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졸업생의 약 10%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전공분야에서의 취업에 크나큰 누수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4. 여학생 수의 증가 문제

최근에 이르러 농과대학에 여학생들의 비율이 눈에 띄는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특히 높은 학과가 아마도 원예학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농과대학에 여학생들의 증가는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전공실습과 관련하여 일손의 부족과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의 문호가 농학계열 학과 출신 여학생들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로 인해 농대 졸업생들의 실업률

증가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농과대학에 여학생들의 증가가 높은 주된 이유로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낡은 산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천편일률적으로 전공에 구분없이 입학시험성적에 준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에 대한 소신이나 흥미보다는 대학진학의 한 방편으로 점수에 맞추어 지원하는 결과가 빚어내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진다. 실업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교육정도에 따른 성별로 구분 지어 보면 대졸자의 경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 실업률 보다 높아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95년 현재 3개 대학 농업교육과 재학생들의 남녀간 성별의 비율을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위의 <표 13>에서 보면 건국대학교 농업교육과 전학년 재학생들의 여학생 구성비는 무려 65.3%에 이르고 있고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의 경우는 6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의 경우는 앞의 두 대학과는 달리 여학생 구성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서울대 농업교육과의 커트라인이 서울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그 점수를 지닌 여학생들의 경우 능히 타대학 인기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서울대 농업교육과의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상반된 두가지 현상 즉, 건국대와 순천대의 경우 대입학력고사의 점수는 다소 낮더라도 졸업후 농업교사로의 자질과 뜻이 있는 남학생들의 자리를 학력고사의 점수가 다소 높다는 이유로 입학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는 학력이 높은 여학생들이 차라리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선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대학의 농업교육학과에 남학생이 보다 많

표 13. 성별에 따른 농업교육과 재학생의 구성비

대학	학년	남학생수	여학생수	계	여학생 구성비(%)
건국대	1	14	16	30	53.3
	2	8	23	31	74.2
	3	7	15	22	68.2
	4	11	21	32	65.6
서울대	1	30		30	0.0
	2	29		29	0.0
	3	26	2	28	7.1
	4	29	1	30	3.3
순천대	1	10	10	20	50.0
	2	3	15	18	83.3
	3	8	11	19	57.9
	4	12	18	30	60.0
계		187	132	319	41.4

이 들어와야 한다거나 여학생은 부적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업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말로 직무에 적합한 외형적인 자질과 농업교사로서의 내면적인 사명감을 지닌 지원자들의 학문의 도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적인 변동과 교사 이직율 등 외생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예상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제반 외생변수가 발생할 경우는 그에 따른 추정이 별도로 필요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1. '80년 이후 농업계 고등학교와 학생 및 교사수의 변화

IV. 농업분야 교직 진출의 전망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진출을 전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먼저 '80년 이후 농업교사 진출의 선행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학생 및 교사수의 변화 추이를 통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적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난 후 '94년 현재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농업교사의 현황을 교과 자격증별, 근무지역별, 출신 대학별로 구분해 보았고 현재 재직 중인 농업교사들의 연도별 교직정년을 분석해 봄으로서 향후 농업교사 채용과 관련한 교과영역별, 채용 지역별 인원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적이고 기계적인 추정은 향후 정부가 현재의 농업교사의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전망한 것이며 농업계 학교들에 대한 학제 개편 및 통폐합 등 정책변화로 인한

먼저 과거 1980 년에서부터 1993년에 이르는 과거 14년간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학급수, 교사수의 증감 현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았다.

위의 <표 14>에 따르면 '80년 당시 75개교에서 '93년 36개교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학급수로 본다면 '80년 1,029개 학급에서 '93년 현재 630개 학급으로 무려 229 학급의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한편 이같은 농업고등학교의 수와 학급수의 감소는 자연히 농업교사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80년 1,930명의 농업교사가 94년 현재 1,715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수의 증감 현상은 학교 수나 학급 수와는 달리 8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에 2,552 명까지 증가했으나 90년 이후 급격한 수적인 감소 현상을 보여

표 14. 1980~'93년까지의 농업고등학교 관련통계

연도	학교수	증감	학급수	증감	교사수			
					전체	증감	여교사	증감
1980	75		1029		1930		26	
1981	56	-19	1059	+30	1997	+67	43	+17
1982	58	+2	1050	-9	2150	+153	53	+10
1983	60	+2	1102	+52	2283	+133	72	+19
1984	61	+1	1119	+17	2314	+31	77	+5
1985	61	0	1098	-21	2335	+21	96	+19
1986	61	0	1096	-2	2336	+1	115	+19
1987	62	+1	1098	+2	2418	+82	145	+30
1988	62	0	1090	-8	2521	+103	187	+42
1989	59	-3	1041	-49	2513	-8	222	+35
1990	55	-4	984	-106	2552	+31	269	+82
1991	51	-4	891	-93	2399	-153	292	+23
1992	47	-4	859	-32	2239	-160	281	-11
1993	36	-11	630	-229	1715	-524	230	-51

교육부, 연도별 문교통계연감

92년에서 93년에 이르는 1년간의 기간 중에는 2,239명에서 1,715명으로 무려 524명이나 줄어드는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교사의 수적인 감

소 현상은 80년 이후 89년에 8명이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90년도까지는 꾸준한 증가현상을 보였으며 90년 이후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표 15. '80년 이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변화추이

연도	입학자수		졸업자수		탈락율	
	전체	여학생	전체	여학생	전체	여학생
1980	2017	818	15857	788	21.4	3.7
1981	20395	833	15339	804	24.8	3.5
1982	20165(27604)	952(1260)	16974(23681)	904(1402)	15.8	5.0
1983	19734(25083)	2107(2445)	18093(23680)	609(1217)	8.8	72.1
1984	20077(24453)	2017(2204)	18743(23846)	847(1125)	6.6	58.0
1985	18305(22439)	1780(1976)	17239(22451)	758(1043)	5.8	57.4
1986	17445(21154)	1939(2175)	16149(19966)	1512(1822)	7.3	22.0
1987	18005(21962)	1918(2210)	16187(19912)	1617(1802)	10.0	15.7
1988	16858(19624)	1883(2059)	14655(17729)	1461(1612)	13.0	22.4
1989	15913	2041	13311	1485	16.3	27.3
1990	14718(17417)	2330(2688)	13716(17566)	1535(1781)	6.8	34.1
1991	12573(14048)	2382(2467)	11642(15706)	1336(1658)	7.4	44.2
1992	11019(11536)	2015(2190)	10945(15028)	1411(1935)	0.7	29.9
1993	8455(11566)	2297(2909)	8392(13738)	1414(2330)	0.8	39.4

()속의 숫자는 순수농고 이외 농업계 학생 숫자임.

있어 이같은 농업교사 수의 증감 현상에 따른 시대적 정책적 배경과 농업교사 증감에 작용했던 관련변인이나 이유에 대한 별도의 규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학교수, 학급수 및 교사수의 변화와 더불어 80년 이후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제시해 보면 <표 15>와 같다.

2. '94년 현재 농업교사의 배경별 현황

농업분야의 교직진출 전망과 관련하여 1994년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농업교사들의 현황을 근무지역별, 소지 자격증별, 출신학교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농업교사현황

농업교사들의 근무지역별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6>과 같이 가장 많은 농업교사가 근무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지역으로 195명의 농업 교사가 재직중인 곳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경기지역'의 189명, '경상남도' 지역의 189명 그리고 '전라남도' 17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지역별 농업교사 분포현황

지역	교사수	백분율
강원	119	8.3
경기	189	13.2
경남	188	13.1
경북	139	9.7
광주	38	2.6
대구	28	1.9
대전	38	2.6
부산	22	1.5
전남	174	12.1
전북	132	9.2
제주	43	3.0
충북	131	9.1
충남	195	13.6
계	1436	100.0

2) 교과영역별 농업교사 현황

자격증 표시 교과별 농업교사 현황을 보면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이 표에 따르면 농업분야 가운

데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표시과목은 582명의 '농업'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축산(257명), 원예(174명), 임업(116명) 농업토목(115명), 농업기계(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로 구분된 자격증 표시과목은 가정, 건축, 과학, 생물, 미술, 사회 등으로 구별이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농업교사로 출발한 교사들이 재직 기간 중 교육대학원에서 타 전공을 이수하여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교원 강습 등을 통한 이같은 제2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근무중인 인원으로 추정된다.

표 17. 자격증 표시 영역별 농업교사 현황

교과	교사수	백분율
농경	4	.28
농공	3	.21
농기	38	2.64
농산	4	.28
농업	582	40.52
농제	21	1.46
농토	115	8.01
농학	2	.13
농화	6	.41
식가	4	.28
식공	3	.21
양잠	2	.13
연초	1	.06
원예	174	12.11
임업	116	8.07
작물	1	.06
잠업	18	1.25
조경	1	.06
축산	257	17.89
기타	84	5.84
계	1436	100

3) 출신대학별 농업교사 현황

현재 재직중인 농업교사들의 출신 학교별 분류를 해 본 결과 <표 18>과 같았다. 이 표에서 보면 농업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출신대학은 서울대학교로 178명이었으며 다음이 경상대(115명), 강원대(102명), 충북대(108명), 충남대(104명) 건국대(88명) 그리고 경북대(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출신대학별 농업교사 현황

대 학	교 사 수	대 학	교 사 수
강원대	102	삼육대	1
건국대	88	서울대	178
경기대	1	서울중등	1
경남대원	1	성균대원	1
경북대	82	순천대	40
경상대	115	시립대	27
경희대	2	영남대	6
계명대원	1	원광대	6
고려대	16	이리대	2
고시검정	13	전남대	32
공주사대	5	전북대	13
관동대	2	제주대	35
광주대	2	중앙대	2
국민대	4	진주교대	2
단국대	7	청주대	1
동국대	21	총회신학	1
동아대	37	충남대	104
명지대	2	충북대	108
방통대	7	한양대	3
부산대	5	홍익대	2
부산수산	1	기타	357
계		1436	

註) 상기 출신학교별 분류에 있어 대학원은 해당대학 학부에 합산한 숫자임.

3. 향후 농업교직진출의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농업교사직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작용하게 되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다가올 농업교사직 수요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생각되어 진다. 농업교사 진출을 위한 향후 수요 예측적 기능은 농업계 고등학교 및 학급수의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 해당부서의 정책적 차원에 대한 상충적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 파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며 그 어느 한쪽의 추정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이같은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차후 별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단지 현 단계에서 미래 불확실한 상황변수를 고정 변수로 상황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재직중인 농업교사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담당교과목의 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충원을 전제로 기계적인 분석과 전망만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연령별(출생 년도별) 농업교사 현황

1994년 7월 6일 현재 교육부에 파악되어 전국농업교사 명단에 실려있는 농업교사의 생년월일을 재분류하여 다음 <표 19>와 같이 출생 년도별 교사 수를 파악하여 95년 기준 만 65세가 되는 교사들의 수를 산출하였다.

표 19. 출생 년도별 농업교사의 교직 정년 대상자 수

출생년도	연령 : 95년기준	교사수	출생년도	연령 : 95년기준	교사수
1928	67	1	1950	45	33
1929	66	11	1951	44	36
1930	65	26	1952	43	34
1931	64	28	1953	42	32
1932	63	40	1954	41	44
1933	62	54	1955	40	42
1934	61	59	1956	39	30
1935	60	64	1957	38	19
1936	59	46	1958	37	26
1937	58	42	1959	36	15
1938	57	45	1960	35	23
1939	56	29	1961	34	26
1940	55	40	1962	33	22
1941	54	50	1963	32	26
1942	53	50	1964	31	25
1943	52	32	1965	30	20
1944	51	37	1966	29	19
1945	50	42	1967	28	16
1946	49	49	1968	27	11
1947	48	61	1969	26	13
1948	47	50	1970	25	5
1949	46	59	1974	21	1
				기타	2
계		1436			

위의 <표19>를 보면 현재 대학 농업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97년부터는 해마다 40명에서 64명까지의 꾸준한 농업교사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95년 현재 38세에 있는 농업교사들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 2022년 이후부터는 농업교사의 수요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2) 년도별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 소지현황

앞서 제시한 농업교사들의 정년을 기준으로 향후 농업교사들의 교직 수요를 분석해 보았는데 이같은 수요를 전제로 향후 농업교사로서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서 농업교육과 학생들 가운데 교직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

의 전공선택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보았다. 물론 이같은 예상 역시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동일 표시교과영역별 교사 충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표 20. 해당 연도별 정년대상자 수와 해당 표시과목

해당년도	퇴직대상자수	해당교과목명
1995	23	농업(17), 임업(3), 축산(2)
1996	25	농경(1), 농업(16), 임업(3), 축산(5)
1997	38	농경(1), 농업(24), 농토(2), 원예(3), 임업(3), 축산(5)
1998	43	농업(20), 농토(1), 농화(1), 양잠(1), 원예(4), 임업(5), 축산(11)
1999	50	농업(27), 농토(1), 농화(1), 원예(4), 임업(6), 잠업(1), 축산(10)
2000	90	농업(59), 농토(2), 원예(5), 임업(9), 잠업(1), 축산(14)
2001	39	농업(21), 농화(1), 원예(2), 임업(5), 축산(10)
2002	38	농기(1), 농업(20), 농토(3), 양잠(1), 원예(2), 임업(3), 잠업(1), 축산(7)
2003	44	농업(23), 농토(2), 원예(3), 임업(3), 축산(13)
2004	24	농업(13), 농토(1), 임업(4), 잠업(1), 축산(5)
2005	36	농업(23), 농토(1), 농화(1), 원예(1), 임업(1), 잠업(2), 축산(7)
2006	48	농산(1), 농업(20), 농제(2), 농토(2), 식공(1), 임업(6), 작물(1), 축산(15)
2007	48	농업(24), 농토(3), 농화(2), 원예(2), 임업(7), 잠업(2), 축산(8)
2008	32	농기(1), 농업(12), 농토(2), 농화(1), 원예(3), 임업(3), 잠업(2), 축산(8)
2009	37	농기(1), 농업(14), 농토(4), 원예(9), 임업(2), 작물(2), 축산(5)
2010	41	농기(1), 농업(16), 농토(7), 원예(4), 임업(5), 잠업(2), 축산(6)
2011	49	농기(1), 농업(19), 농제(1), 농토(5), 원예(11), 임업(2), 잠업(1), 축산(9)
2012	59	농업(24), 농토(10), 원예(8), 임업(5), 잠업(2), 축산(10)
2013	48	농업(21), 농토(12), 원예(4), 임업(5), 축산(6)
2014	58	농경(1), 농업(24), 농제(1), 농토(8), 원예(7), 임업(6), 축산(11)
2015	33	농업(16), 농토(5), 원예(3), 임업(5), 축산(4)
2016	35	농공(1), 농업(15), 농토(2), 연초(1), 원예(6), 임업(6), 축산(4)
2017	31	농경(1), 농기(1), 농업(17), 농토(4), 원예(3), 임업(1)
2018	31	농업(9), 농제(1), 농토(10), 원예(6), 임업(1), 축산(4)
2019	42	농기(8), 농업(15), 농토(6), 원예(4), 임업(3), 축산(11)
2020	40	농기(1), 농업(19), 농제(2), 농토(9), 식공(1), 원예(5), 축산(3)
2021	30	농공(1), 농기(4), 농업(9), 농토(2), 원예(6), 임업(2), 축산(6)
2022	19	농기(3), 농업(4), 농제(2), 농토(2), 식가(1), 원예(3), 임업(1), 축산(3)
2023	23	농기(3), 농업(5), 농제(1), 농토(3), 원예(7), 축산(4)
2024	14	농기(4), 농업(5), 원예(2), 임업(1), 축산(2)
2025	22	농기(1), 농산(2), 농업(8), 농제(2), 원예(4), 임업(5)
2026	25	농공(1), 농업(9), 농화(1), 원예(9), 임업(2), 축산(3)
2027	19	농기(2), 농산(1), 농업(4), 원예(8), 임업(1), 축산(3)
2028	25	농업(8), 농토(2), 식가(1), 원예(3), 조경(1), 축산(10)
2029	24	농기(2), 농업(5), 농제(1), 농토(1), 원예(8), 축산(7)
2030	18	농기(2), 농업(7), 농제(1), 원예(3), 축산(5)
2031	19	농기(1), 농업(3), 농제(2), 원예(3), 축산(10)
2032	16	농기(2), 농업(2), 농제(1), 식가(1), 원예(7), 축산(3)
2033	8	농기(2), 농업(2), 농제(1), 원예(1), 임업(1), 축산(1)
2034	9	농기(1), 농업(3), 식가(1), 원예(6)
2035	5	농기(1), 농업(1), 농제(3)
2039	1	원예(1)

앞의 〈표 20〉을 통해 예측되는 현상은 향후 농업 분야의 자격증 표시과목 가운데 생산분야 중심의 표시과목 즉, 농업, 축산, 그리고 임업 과목에 대한 교사가 대거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5년 뒤인 서기 2000년대가 될때까지 정년을 맞이하게 될 교사들의 담당교과별 표시과목의 수는 농업이 163명, 축산이 47명, 임업이 29명, 그리고 원예가 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주 원인은 향후 머지 않아 정년을 맞이하게 될 농업교사들이 최초 교직에 진출할 1960년대 당시 농업고등학교의 운영이 농업, 축산, 임업, 원예 위주의 생산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때문으로 보이며 오늘날 농업고등학교의 형태가 일차 산업으로 부터 이차 가공산업과 삼차 서비스 산업 형태로의 방향 전환에 향후 농업교사 채용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정년대상 교사의 소지 자격증이 신규채용 농업교사들의 교과영역별 수요를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다. 단지 이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농업교사 채용과 관련한 정책적 반영에 보다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과거 30여년 간의 시대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국내 대학교육기관의 농업교육과는 그 학과 나름대로의 고유 존재가치와 역할기능 그리고 활동영역의 확대를 위해 체제의 재정립과 역할기능의 새로운 탐색 그리고 졸업생의 진로확대와 신입생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대학의 농업교육과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향후 이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향후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진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앞에서提起된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교직진출의 문호를 넓혀주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신입생의 선발과 교사 임용을 위한 제도개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체제하에서 농업교육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입시 제도가 선 시험 후 지원 체제로 전환된 이후 농업교육과에 입학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과 설립취지와 교육목적 그리고 교과과정과는 걸맞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학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과에 입학한 상당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가까지 끌려온 말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노력'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시험의 명칭이 의미하듯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학과 전공 수행능력시험'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공불문 적성불문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목적만 팽배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업교육과 고유의 그리고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란 실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농업교육과를 지원하기는 했으나 수능시험 성적 때문에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엘 가고 싶지 않아서 입학원서를 살 무렵 자신의 학문적 흥미나 적성 그리고 장래 직업과는 상관없이 우선 대학에 불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교육과를 지원해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의 발생은 현행 대학 입시의 선발제도가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을 택함으로써 장차 농업교사로서의 뜻을 지닌 학생들의 선발을 어렵게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계 고등학생들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이 오래전부터 건의되어 왔지만 대학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해당대학 신입생들의 고득점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행 학생 선발제도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제도로 인해 정작 학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농업교육과 설립취지와 졸업 후 농업교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지원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지녀왔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같은 논리는 농업교사를 선발하는 현행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기와 실습 지도에 상당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농업교사는 분명 교실에서 주지고

과를 담당하는 교사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직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교사 임용시험의 제도가 영어나 수학 등 주지교과 담당 교사의 임용시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험접수에 근거한 선발제도를 택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선 농업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교사의 직무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같은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 질 때 대학의 농업교육과는 학과 교육 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고 농업교사의 임용 또한 일선 농업고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환경교과 및 진로직업교과 담당교사 양성체제의 역할분담 및 법적, 제도적 방안 모색

앞서 본 연구의 농업교사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농업교사들의 수요는 매년 평균 5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 또한 교직 정년을 맞이하는 농업교사들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성립되는 추정인데 향후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유인체제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60년대에 교직을 출발한 현재 정년대상 농업교사들의 자리가 곧 충원대상 자리로 보장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3개 대학 농업교육과에서 선발하여 배출하고 있는 80여명의 학생들 가운데 교직진출을 할 수 없는 대다수 학생들의 교직 진출의 기회와 문호를 넓혀 줄 수 있는 농업교육학회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 가운데 하나가 농업교육과의 교과 과정에 농업환경관련 교과목들의 개설과 진로 및 직업 관련 교과목들의 확충을 하는 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농업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농업교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현행 농업교육 전공의 영역들을 이수케 하고 농업교사를 원치 않지만 교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농업 환경교육' 전공이나 '진로직업 교육' 전공을 이수케 함으로서 졸업 후 교직에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교육 학회 차원에서의

대 교육부 담당부서에 대한 건의와 타당성에 대한 설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스라엘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농업교육 담당자들이 중 고등학교의 환경교과 개발과 교과 담당자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3. 3개 대학 농업교육과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방안 탐색

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3개 대학 농업교육과의 교과 과정을 차별화 특성화하는 방법도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같은 발상의 근간은 하나의 나무 속에 뿌리, 나무줄기, 그리고 나무 잎들이 제각기 역할과 기능 서로 다르면서도 이들 3자가 나무라는 하나의 개념과 형체 속에 포함되듯이 하나의 한국 농업교육학회 내에 건국대와 서울대 그리고 순천대학의 3개 농업교육과가 각자의 교수진영과 여건에 알맞게 역할분담을 하고 그 같은 역할에 걸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앞서 제시한 농업교육, 환경교육, 진로직업교육의 3대 교원양성 체제로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향후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 체제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농업교육과의 특성화 차별화의 한 예로서 금년도 순천대 농업교육과 졸업생 가운데 5명이 교직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3명의 여학생이 농업교사로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남자 졸업생의 경우는 '전자 공학과' 분야의 부전공 이수를 통한 교직 진출이 이루어 졌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오늘날 국내 대학의 농업교육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대학 지원자들로부터 '비인기학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며 졸업후 교직진출의 전망이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내 고등교육의 일대 지각변동 속에서 농업교육과가 어떻게 해서 학과 고유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과 교육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향후 국내 대학의 예상되는 변화는 농업교육과에게 있어 직접 간접으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국내 대학가의 변화 판도로는 학교간의 自由競爭 原理의 도입과 消費者 選擇 機會의 擴大, 그리고 대학 건물이나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사회수요와 국제적 감각에 알 맞는 良質의 교육내용 개발 즉, 소프트웨어의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교육과의 정원미달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대학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결 넓어지게 되며 현재 중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공급이 대학에서의 모집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성 불문, 전공불문'의 4년제 대학 붙고 보자는 대학입학의 한 방편으로 농업교육과 신입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금의 호경기⁸⁾는 우리사회의 '거품경기'처럼 곧 스러질 날이 머지않아 도래하리란 예측을 가늠해 준다.

그 한 예로 해마다 입시 때가 되면 농과계 학과들은 커트라인 하락 현상에 곤혹 감을 금치 못한다. 본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수집분석한 全國農科系大學들의 1985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6년간의 입시 커트라인 평균점수는 학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대학 전체 입시 평균 커트라인 점수 보다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입학 초기부터의 이같은 심한 학력격차 현상이 점차 심화되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의 명성과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매우 중요한 準據가 된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단과 대학 어느 학과에 많이 지원하는가는 바로 그 학과 학과의 상대적 인기도를 말해주는데 이같은 현상은 어느 분야가 현재 또는 다가올 장래에 전망이 좋은가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학문의 영역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修正 내지는 補完, 그리고 경우에 따라 尖端分野로 대체가 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경쟁력도 제고

될 수 있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적응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 관심사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대학 종합평가의 평가인정기준'을 보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학은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발전하는 학문세계의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⁹⁾

어느 단과대학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학과 설립 당시의 시대적 필요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설립된 학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 필요한 분야였기는 하지만, 가깝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앞서 지적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분야가 오늘날 상당 수 남아 있는 것이 우리네 대학들의 현실이다. 우리네 농업교육학회도 어느새 30년의 연륜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이 땅의 농학발전과 농업교육에 수 많은 기여를 해 왔고 많은 업적도 남겼으나 이제는 지난 날의 향수나 현실적 상황에 대한 한탄에서 벗어나 과감히 다가올 21세기를 향한 체제의 개혁과 변신을 통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긴박한 시점에 다달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 농업교육과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몇가지 대안들이 향후 보다 구체화 되고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오성삼, 인력자원의 개발과 대학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권 48호, 1990. 11. pp. 19-22.
2. _____, 21세기를 주도하는 대학교육, 인재제일 1. 2월호, (주) 삼성, 1991, pp. 19-22.
3. _____, 농과대학 발전방안의 탐색, 건국대학교 농업자원 개발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원고, 1991.
4. _____, 농업교육과 학생들의 학과 지원형태와 입학 후 전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농자원 개발 논집 제 17편, 1992. pp. 143-167.
5. _____, 대학농업교육과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의 탐색,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4권, 제4호, pp. 141-158.

6. _____, 사회체제의 변화와 고등교육 체제의 재정립, 공업기술교육 제 62호, 1992. 7. pp. 47-53.
7. _____, U. R. 과 교육시장대책, 靑五 제27집,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1994.
8. _____, 농업인력 수급과 졸업생의 진로 방향, 제3회 전국 농학계대학 교수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전국농학계대학 학장 협의회, 1995. PP. 103-137.
9. _____, 농업교직 분야의 진출전망과 대안, 한국 농업교육학회 세미나 발표원고, 95. 6.
1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교육체제의 대응, 1990. 연구보고 RR90-15.
11. 허신행, '한국농촌발전과 교육의 역할', 제2회 배민수 기념강좌,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10.
12. 이영대, 김종숙, 정명채, 농업계 교육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미 주

- 1) 조선일보, 1994.12.7일자(수) “고학력 고실업” 기사 참조.
- 2) 오성삼, 농업인력수급과 졸업생의 진로방향, 전국 농학계대학 학장협의회 주관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995. p. 130.
-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4년도 대학 종합평가의 평가인정기준, 자료 제94-7-116호, 1994. P. 5.